

## 2019-20년도 한국로타리 동기 총재단 3650지구 방문, 동기모임과 서울나들이



글. 차차기총재 樹下 박수부(서울중앙RC)  
2019-20 동기 총재단 회장

지난 12월 1일(금)~2일(토) 1박 2일간, 2019-20년도 존 9/10(a)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동기총재 19명과 영부인 등 40여명이 박수부 3650지구 차차기총재가 주최하는 동기총재단 서울 모임을 가졌다.

2019-20년도 한국로타리 총재 19명의 총재들은 다가오는 총재직 수행을 앞두고 지구간 친교와 원활한 정보공유로 로타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개월 간격으로 각 지구를 순회방문하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로 동기총재단 회장인 박수부 3650지구 차차기 총재 지역인 서울로부터 시작하여 첫날인 12월 1일 3시 명동 퍼시픽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곧바로 단체버스로 3650지구 임원이 참여, 45명이 최근 완공한 한국최고의 랜드마크 건물인 롯데타워로 이동, 4시부터 40여 분간 롯데타워 회의실에서 송귀영 지구 한일친선위원장으로 부터 3650지구 현황소개와 금년 2016-17년도 지구대회 및 2017-18년도 김장봉사 영상물을 감상했다.

이어 이동건 전RI회장께서 참석하여 2019-20년도 동기 총재단과 영부인을 환영하며 격려사를 해주셨다.



또한 우리 지구 박영구 전총재와 박호군 전총재도 참석하여 환영사로 인사를 나누었다.

롯데타워 42층에 마련된 회의실에는 어느새 어둠이 깃들어 63빌딩보다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이는 바깥풍경은 장관이었다. 우측으로 보이는 아차산으로부터 서쪽 남산과 마포대교까지 한눈에 보이는 한강 줄기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불 켜진 차량의 물결.. 가히 장관으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장소로 우리 일행을 맞이하여 현황을 설명해준 롯데타워 현회섭 이사과 정창욱 팀장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2시간 정도의 투어를 끝내고 우리 지구 이병환 의전위원장(한양RC)이 운영하는 테헤란로 에도킨 일식집으로 이동, 즐거운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 장소에는 이영호 전총재가 배석하여 환영사를 해주셨으며, 모두가 자축의 건배를 하며 동기총재들이 한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펼쳐졌다.

식사 후 명동 여흥장으로 이동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각자 장기의 노래실력이다. 멀리 제주도로부터, 창원, 삼천



포, 부산, 여수, 전주, 청주, 태안, 대구, 인천, 서울 등 전국 지역을 대표할 차차기 총재님들.. 역시 '총재는 아무나 하나'라는 말이 실감날 뿐이다.

둘째 날 일찍 퍼시픽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일정에 따라 남산으로 이동, 살짝 첫눈이 내린 맑은 서울의 아침을 살펴봤으며, 오전 10시에는 용산 국립 박물관으로 이동 각자 관심 있는 전시관을 자유롭게 관람했다.

이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 여장을 챙겨 서울역까지 관광버스로 이동, 서울역에서 배웅을 했다.

모든 동기 총재님들이 성공적으로 1박2일의 여정을 마침에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으며 다음은 두 번째 3722지구 박종한 차차기총재의 창원에서의 모임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이번 행사의 기념 선물을 마련해주신 이순동 총재를 비롯한 3650지구 전임 총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사 진행을 위해 도움주신 송귀영 위원장, 김희태 전 6지역대표, 서울중앙RC 김석규 회장, 김태연 총무, 이송희 봉사위원, 서울사직RC 최홍진 회장께 모두 고마움을 전한다.



2019-20 동기 총재단 임원진  
회 장 : 3650지구 수하 박수부  
부회장 : 3661지구 고원 이기삼  
총 무 : 3740지구 현곡 박종희  
부총무 : 3620지구 홍주 김중연  
재 무 : 3600지구 유담 신해진

